

“전 재산 29만원” 전두환 재산목록부터 다시 살펴야

미납 추징금 991억원 악착같이 받아내려면

검, 전씨 호화생활에 재산목록 파악 신청... 법원 기각
추징금 2205억 중 1214억 집행... 환수재산 찾기 분주
‘자진납부’로 300억 추징 가능하지만 사망 뎀 불가

전두환(89)씨는 지난 1997년 뇌물수수
와 균형법상 반란혐의로 무기징역과 2205
억원의 추징명령을 받았다.

23년이 지난 올해 검찰은 전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전씨 재산 목록을
다시 확인하겠다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
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전씨 추징금 미납액은 얼마인지,
받아 낼 수 있는지에 대해 광주 시민은 물
론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애초 지난해 4월 ‘2003년 처음으
로 전씨 재산목록을 확인한 뒤 오랜 시간
이 흘렀고, 전씨가 자발적으로 납부한 추
징금 액수도 미미한 점’ 등을 들어 재산명
시를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 7일 서울서부지법 민사3부
는 지난달 28일 검찰이 전씨를 상대로 낸
재산명시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이미 재산목록이 제출됐으며,
재산목록이 허위라면 형사절차(민사집행
법위반)에 의하면 된다”면서 “전씨가 이밖
에 쉽게 찾을 수 없는 새로운 재산을 취득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취지

로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전씨가 자발적으로 납부한 적도
거의 없고, 지난해 골프를 치거나 ‘삭스핀
만찬’을 즐기는 등 호화생활을 즐기는 모
습이 포착되면서 재산목록을 확인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과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두환 추징금 현황은? 전두환에게
선고된 추징금 2205억원 중 절반을 조금
넘은 1214억원이 집행됐다. 미납금은 991
억원(45%)이다.

지난 1997년 추징금이 책정되자마자 국
세청은 전두환 명의로 된 채권 188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 100억원을 즉시 추징했지
만 더 이상의 추징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후 2003년 검찰의 비자금 추적에 전씨
부인 이순자씨가 추징금 200억원을 대납
했다.

이후 10년 동안 추징금 납부가 없었다가
추징 시효가 끝나는 2013년 ‘공무원범죄
에 관한 몰수 특별법’ 제9조의2(이하 ‘전
두환 추징법’)이 제정되면서 다시금 추징
금 환수에 불이 붙었다.



국민적 여론과
검찰의 압박 아래
전씨 측은 장남 전
재국씨를 내세워
‘자진납부 계획
서’를 내놓았다.
이를 바탕으로 그
동안 전씨 측의 재
산압류 공매 절차

를 진행돼 991억원의 추징금이 납았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이 제공한
‘전두환 재산 환수현황’자료 상 주요 추징
금 집행 내역은 한남동의 신원플라자 건물
179억7000만원, 서초동 시공사 건물 81억
1천만원, 서초동 상가·업무용 건물 및
근린생활시설 35억1010만원, 경남 고령군
임야 및 도로 8100만원, 경기도 오산시 양
산동 임야 37억1500만원 등이다. 이 외에
다이아몬드와 루비 등 보석류 108점, 카르
티에 100주년 한정판매 시계 4점, 그림 ‘물
방울’ 1점이 있다. 지난해에는 7월 전제국
의 복플러스(도서 도매 유통업체)의 비상
장주식 20만4000주(전체 지분의 51%)를
공매해 6억 1511만원을 추징했다. 올해에
는 전씨 장녀 명의로 된 경기 안양시 소재
임야를 공매해 10억1051만 원을 추가로
환수했다.

◇991억원 환수 가능성은? 과연 남은
991억원의 미납금을 모두 환수할 수 있을
까?

전씨 측은 제3자의 재산 추징을 가능하
도록 한 ‘전두환 추징법’이 위헌이라며 위
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공매가 진행
중이던 연희동 자택 등에 대해서도 추징금
집행 이의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올해 2월 전두환 추징법이 헌법
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고, 지
난달 26일 연희동 자택을 강제 처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재판의 심문기일이 종료
돼 재판부의 선고만 남겨 두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전씨의 건강이다. 전씨
가 사망할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추징·몰수
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제 환수가 완료 되지 않은 전두환씨의
재산은 전씨가 살고있는 서울 연희동 자택
을 비롯해 경기도 오산 양산동에 있는 500
억원 상당의 임야, 서울 이태원의 준아트
빌 등이 대표적이다. 전씨 측은 지난해 말
부터 연희동 집을 비롯한 남은 재산을 지
키기 위한 소송전을 벌이는 등 ‘재산 지키
기’에 나서고 있지만, 전씨 측에 불리한 판
결들이 잇따르고 있다.

전씨 측은 제3자의 재산 추징을 가능하
도록 한 ‘전두환 추징법’이 위헌이라며 위
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공매가 진행
중이던 연희동 자택 등에 대해서도 추징금
집행 이의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올해 2월 전두환 추징법이 헌법
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고, 지
난달 26일 연희동 자택을 강제 처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재판의 심문기일이 종료
돼 재판부의 선고만 남겨 두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전씨의 건강이다. 전씨
가 사망할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추징·몰수
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두환 재산환수 현황

유형	책임재산 현황	환수 현황
부동산 (8건 1,270억원)	오산 양산동 임야 13만평(500억원)	공매되어 검찰에 74억원 배분되었으나, 명의자 신탁회사 이의신청으로 소송 중
	허브빌리지(250억원)	8.4억원 환수 완료
	신원플라자(180억원)	179.7억원 환수 완료
	시공사 사옥 및 부지 400평(160억원)	68.5 환수 (매각대금 및 구상금 채권) 및 44.2억 추가 환수 예정
	연희동 사저(80억원)	공매 진행 중 명의자들의 공매처분집행 정지신청 인용, 관련소송 진행 중
	경남 합천군 선산 21만평(60억원)	공매절차에서 계속 유찰 중
미술품 (85억원)	이태원 화백 그림 등 미술품 총 649점	66.6억원 환수 완료
	연교보험(30억원)	환수 방안 검토 중(이순자 명의 보험)
	유엔빌리지 매대대금(27억원)	26.6억원 환수 완료
금융자산, 주식 (4건 총 348억원)	복플러스 주식(16억원)	5.9억원 환수 완료
	이희상의 금융자산	275억원 환수 완료
	웨어밸리 주식	5.3억원 환수 완료
책임재산 외 추가환수 등	보석(다이아몬드, 루비 등)·명품시계류	1억원 환수 완료
	허브빌리지 외부 6필지	4.8억원 환수 완료
	아이에이(A) 주식	0.6억원 환수 완료
‘13 특별환수팀 구성 이전	산업금융채권 등 매각대금	204.9억원 환수 완료
	은행예탁금 추심	107.8억원 환수 완료
	벤츠승용차 등 강제경매	20억원 환수 완료
	자진납부(이순자)	199.4억원 환수 완료
합계		현재까지 총 1201억원 환수 (추징금 2,205억원의 55%)

* 전두환 씨에 대한 전체 추징금 : 2205억 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실 제공)

전남대 21대 총장선거 후보 5명 등록

전남대학교 제21대 총장 선거에 모두 5
명이 입후보했다.

전남대 총장선거 위탁관리 기관인 광주
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가 8일 오후 6시 접
수를 마감한 결과, 김영만(공과대학 신소
재공학부), 송진규(공과대학 건축학부),
이근배(의과대학 의학과), 정성택(의과대
학 의학과), 허민(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
과학부) 교수(가나다 순) 등 모두 5명이
입후보했다.

이들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전남대 민주
마루에서 1차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14
일에는 오전·오후 두 차례에 걸쳐 용봉홀
에서 공개토론회를 가진다.

또 16일에는 여수캠퍼스에서, 18일에는
화순캠퍼스에서 각각 공개토론회에 참여
해 한 표를 호소할 예정이다.

이들 연설회와 공개토론회는 전남대학
교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생중계 될 예
정이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아기가, 독감 예방접종 받자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독감 국가예방접종이 시행된 8일 광주 북구에
덴병원 소아과병원에서 아이들이 접종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수시전형, 자체 분석보다 교사 상담 우선

고3생 대입지원 계획 설문

대입 수시모집 지원을 위해 전형계
획을 스스로 분석하기보다는 교사와의
진학 상담이나 입시기관 모의지원 서
비스를 참고하는 수험생이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입시전문 교육기업 진학사는 지난 2
일부터 6일까지 고3 회원 321명을 대
상으로 2021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지
원계획 관련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시 지원 시 가장 큰 도움을 받은 요
소는 ▲학교 선생님의 진학 상담
23.4%(75명) ▲입시기관의 온라인
모의지원 서비스 22.7%(73명) ▲스
스로 전형계획을 분석하고 판단
20.2%(65명) ▲‘어디가 사이트’
18.1%(58명) 등의 응답이 나왔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는 ‘스스로 분
석하고 판단한다’는 수험생(27.6%)이
가장 많았지만, 올해는 같은 답변 비율

이 약 7%포인트 낮아졌고, ‘입시기관
모의지원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답변
(지난해 15.0%) 비율이 약 7%포인트
높아졌다. 코로나19 때문에 예측 불가
능한 대입 상황이 전개되면서 수험생
들이 입시기관에 더 의존하게 된 것으
로 보인다

수시 지원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질문(복수응답)에는 ▲입시상
담 등을 통해 유리한 전형 탐색 26.8%
(146명) ▲꾸준한 수능학습 26.3%
(143명) ▲대학별 교사 준비 21.3%
(116명) 등의 응답이 나왔다.

대학입시에서 가장 공정한 평가 요
소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찍은 수험
생이 36.8%(118명)로 가장 많았다.
근소한 차이로 ‘학생부 교과’라는 응답
(35.5%/ 114명)이 뒤를 이었다. 수능
이 가장 공정하다는 응답은 2018년 조
사에서 48.0%, 지난해에는 43.7%였
는데 줄어드는 추세다.

/김대성 기자 bigkim@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중-102256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척추, 관절 중점 치료

한결같은 마음으로 “곧은 척추, 굳건한 관절”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특 특

백내장 오인하는 익상편, 원인과 치료

◆익상편이란? 익상편은 주로 안구의 내측 결막(흰자위)에서부터 각막(검은동자) 쪽으로 섬유혈관조직이 증식되어 침범, 진행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익상편은 ‘굳날개’라고도 하며, ‘백태’가 낀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증상 흰색의 섬유혈관성 조직이 검은자를 덮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미용상 문제가 되는 것 외에 문제는 없으나, 간혹 심한 경우 난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진행이 많이 되어 동공(애기동자)까지 침범했을 경우에는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곤하고 눈이 자극받으면 충혈이 유난히 심해지기도 합니다.

◆치료 익상편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증상에 따라 증상의 호전을 위해 약물치료를 합니다. 그렇지만 약물치료로 익상편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각막을 많이 침범하지 않은 대개의 경우는 경과 관찰만 하면 되고, 진행이 많이 돼 동공 근처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시력보호를 위해 수술로 제거하게 됩니다.

◆수술방법 익상편 수술은 국소마취로, 약 30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통증과 이물감이 있을 수 있으며 약 한 달간 간헐적인 통원치료를 해야 합니다. 수술 시기의 결정은 동공까지 익상편이 침범했을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환자들의 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주느냐를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